

배우 김고는 “나를 단정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

영화 ‘파묘’에서 무당 화림 맡아 열연 선배
누적 260만 관객 돌파 올해 최고 흥행작
“경문 외는 연기 두려워 도망치고 싶기도”
매번 새로운 장르 새로운 캐릭터 도전에
“내 안에 한계 만들어 놓으면 한계 생겨”

로맨틱코미디·스릴러·누아르·무협·뮤지컬·멜로·판타지 등을 오간다. 영화로 데뷔했으나 영화에 나온 것 못지 않게 드라마에도 나왔다. 배우 김고는(33)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어떤 캐릭터도 마다하지 않는다. 2시간짜리 영화는 16부작 드라마든 매체도 신경 쓰지 않는 듯하다. 그런데도 그는 “더 다양하게 연기하고 싶다”고 했다.

지난 22일 공개된 영화 ‘파묘’에서 김고는 무당을 맡았다. 오컬트 장르도 처음, 무당 역할도 처음이었다. 그의 필모그래피는 한층 더 다양해졌다. 아마도 관객은 이전 작품에서 본 적 없는 김고를를 또 한 번 보고 있다. ‘파묘’가 공개 나올만에 200만 관객을 넘어서고 개봉 닷새째를 맞은 지난 26일 김고는를 만났다. 무당 연기에 관한 고민과 그 준비 과정에 대해 얘기하며 특유의 코를 찡긋하는 웃음을 간간히 지어 보이던 그는 “나 스스로 단정 짓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자못 진지하게 말했다.

“새로운 모습을 끄집어낸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작품이 하나 잘 되고 나면 그와 비슷한 결의 작품, 비슷한 유형의 캐릭터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 건 사실 아니까요. 아직 내가 보여주지 않은 걸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만나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내 안에 한계를 만들어 놓고

있으면 정말 한정된 범위 내에서 연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파묘’에서 김고는는 그가 한 말처럼 정말 한계를 뚫고 나가려는 것만 같다. 무언가 숨겨진 데가 있는 듯한 무덤, 이 깨름직한 묘를 파내서 화장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화림은 제자 봉길(이도현)과 함께 풍수사 상덕(최민식), 장의사 영근(유해진)을 찾아가 이 작업을 함께하자고 요청한다. 이때 화림의 역할은 파묘(破墓)가 탈 없이 진행되도록 굿으로 혼을 달래는 일. ‘파묘’의 전반부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대살굿 장면에서 김고는는 실제로 접신한 듯 격정의 에너지로 내뿜는다. 그 기세를 보고 있으면 김고는의 한계는 아직 없다는 걸 새삼 알게 된다.

“본격적으로 굿을 시작하기 전에 경문(經文)을 외는 장면이 가장 어려웠어요. 이게 어설되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스텝 트레스가 워낙 심해서 이 장면 촬영이 계속 미뤄지길 바랐습니다. 정말 도망치고 싶었어요.”

경문 내용을 외우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김고는를 가장 힘들게 한 건 음을 타며 읊는 것이었다. 실제로 무당들은 정해진 음 없이 그때 그때 타는 기운을 갖고 경문을 외는다고 한다. 말하자면 그 모든 게 애드립이라는 얘기다. 김고는는 실제 무당처럼 애드립을

을 타며 경문을 읊어내는 연기를 할 자신은 도저히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화림의 모티브가 된 무당에게 경문 읊 세 가지 비전을 받아 가장 따라하기 쉬운 것을 먼저 노래처럼 통째로 외었다. 김고는는 “노력 많이 했다”는 말이 이 장면 연기에 대해 얘기했다.

노력한 건 이 시퀀스만이 아니었다. 사실상 그는 무당을 체화하려고 했다. 실제 굿을 보러 네 다섯 차례 현장에 갔고, 굿 등 영화 내에서 보여줘야 하는 퍼포먼스는 모티브가 된 무당을 찾아가 수차례 연습을 반복했다. 워낙에 유명하고 바쁜 무당에게 감수를 받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함께할 수 없을 땐 전화 통화는 물론 영상 통화도 불사하며 연기 디테일을 체크했다.

“무당의 강렬한 아우라는 아주 사소한 동작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큼직한 퍼포먼스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동작 하나 하나를 모아가는 것 역시 중요했어요. 굿을 준비하면서 몸을 살짝 떠다든지 목을 꺾어 본다든지 하는 것들이죠. 무당이 하는 동작 하나 하나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소한 움직임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완성한 김고는의 연기에 최민식·유해진 두 선배 배우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최민식은 “김고는는 우리 영화의 손흥민이자 메시”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고는는 대선배들의 칭찬이 민망하다면서도 “자신감이 생긴다”고 했다. “선배님들이 현장에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테이크마다 이게 좋고 저게 좋다는 식으로 자세하게 말씀해주셨죠. 덕분에 제가 더 과감하게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너무나 좋아요.”

최근 김고는는 유튜브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 “돈값(출연료)을 해야 한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마침 스타 배우들의 몸값이 드라마로 치면 회당 1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보



다가 줄을 잇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더 주목 받았다. 이날도 김고는는 “매 작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 연기가 좋은 평가를 받을 때가 있

다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내는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외부의 평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될 것 같아요.”

보이넥스트도어, 자체예능 마무리...친근한 ‘옆집 소년’



그룹 ‘보이넥스트도어(BOYNEXTDOOR)’가 자체 예능을 마무리했다. 소속사 KOZ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유튜브 및

플랫폼 위버스(Weverse) 채널 ‘왓? 도어!(WHAT? DOOR!)’

글로벌 팬덤 라이프 플랫폼 위버스(Weverse) 채널에 ‘왓? 도어!(WHAT? DOOR!)’ 마지막 화를 지난 27일 공개했다.

이날 보이넥스트도어는 ‘보네도 인사이드’라는 주제 아래 서로의 취향과 습관을 따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섯 멤버는 서로의 말투와 평소 습관을 능청스럽게 모사했다. 그렇게 장난기 가득한 티타카를 이어가다가 함께 도시의 야경을 감상하며 “(우리가 모두) 한 곳을 바라보고 있듯, 평생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자”라며 우애를 다졌다.

보이넥스트도어는 “(자체 콘텐츠를 통해) 멤버들이 서로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더 알아가고 싶은 부분도 생겼다. 앞으로 우리에게 더 다양한 일이 주어질 때 함께

어떻게 해낼지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4월 컴백을 앞둔 멤버들은 “영원히 함께하는 팀이 되길 좋겠다”, “좋은 모습, 맛있는 모습 준비한 만큼 팬분들께 (준비한 모습) 보여드리고 건강하게 활동하자. 파이팅!”이라며 훈훈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왓? 도어!’는 올해 데뷔한 ‘새싹 신인’ 보이넥스트도어가 활동하면서 갖게 된 무수한 ‘물음표’를 ‘노깅표’로 채워 가는 여정을 담은 리얼리티 기반의 콘텐츠다. 멤버들은 10화에 걸쳐 다양한 경험을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친근한 ‘옆집 소년’미를 뽐냈다.

한편, ‘왓? 도어!’ 최종화 영상에서는 단독 리얼리티 ‘재미있어 보이네’의 새 로고와 깜짝 공개된 보이넥스트도어의 또 다른 자체 콘텐츠의 시작을 예고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 ‘영준’, 새 싱글 ‘쉴 곳’



그룹 ‘브라운 아이드 소울(Brown Eyed Soul)’ 영준이 새로운 사랑 이야기로 돌아온다. 28일 소속사 누플레이에 따르면, 영준은 이날 오후 12시 새 싱글 ‘쉴 곳’을 발매한다. 앞서 ‘말할지도 몰라’로 올 초 풋풋한 사랑의

시작을 노래했던 영준은 이번엔 또 다른 사랑 이야기 ‘쉴 곳’으로 리스너들과 만난다.

‘쉴 곳’은 영준이 작곡가 전홍준이 다시 뭉친 곡이다.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어주는 가족, 연인, 그리고 사랑하는 이에게 포근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품고 있다. 곡 전체를 감싸는 브라스 사운드가 특징이다.

이번 ‘쉴 곳’의 뮤직비디오에는 “내어준 그 맑은 칸에서 숨 쉬어”라는 노래가가서처럼 서로에게 쉴 곳이 돼 주는 많은 사람의 평범한 일상, 그리고 그 속에 깃든 무한한 사랑이 담겨있다.

또한 뮤직비디오를 위해 섯 사진과 영상을 제공해 준 배우 김기방, 농구선수 허일영·강병현, 가수 조정지·정인 부부, 배우 유하나와 야구선수 이용규 부부, mc프라이 등 알려진 얼굴들을 찾는 재미 또한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매드 “우리 발이 닿는 곳이 무대...당돌함과 자신감 있죠”

신생 기획사 ‘노매드엔터’ 첫 보이그룹 선보여

그룹 ‘노매드(NOMAD)’가 무대 위에서 자유분방하게 노래한다. 알앤비와 힙합의 크로스오버, 멜로디컬 랩 등 형식을 벗어난 도전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다.

노매드는 28일 서울 강남구 성암아트홀에서 열린 데뷔 앨범 ‘노매드’ 쇼케이스에서 “틀에 갇히지 않은 자유로운 음악을 추구하는 그룹”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노매드엔터테인먼트가 첫 선을 보이는 5인조 보이그룹이다. ‘유목민’이라는 뜻의 회사명에서 이름을 가져왔다. 여기에 진심으로 춤추고 무대를 즐기기 위해 마이클을 가져오라는 의미의 ‘니드 어워 마이크론 앤드 댄시스(Need Our Microphone And Dances)’의 앞 글자를 따다.

노매드의 총괄 프로듀싱은 디케이(DK) 프로듀서가 맡았다. 디케이 프로듀서는 YG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테인먼트 전속 작가 이력이 있다. 지난해에는 그룹 세븐틴, NCT 앨범을 프로듀싱했다. 디케이가 대표로 있는 프로듀서

레이블 ‘아이코닉 사운즈’는 보아, 소녀시대, 엑소, 트와이스, 갓세븐 등과 작업했다.

노매드 역시 리더 도의를 중심으로 셀프 프로듀싱 능력을 갖췄다. 이들은 좋아하는 음악을 직접 만들어서 노는 그룹을 표방한다. 도의는 데뷔 앨범 수록곡 전곡의 작사, 작곡에 직접 참여했다. 본인이 겪은 성장에 대한 서사를 힙합 알앤비로 풀어냈다.

노매드 멤버들은 모두 20대다. 24세 도의가 맏형이고, 21세 준호가 막내다. 최근 데뷔하는 그룹들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것과 다른 양상이다. 이들은 20대이기에 공감할 수 있는 고민과 불안, 자신감과 도전 정신 등을 앨범에 고스란히 담았다. 더블 타이틀곡을 제외한 5곡은 모두 선공개했다.

타이틀곡 ‘노 프레스처(No pressure)’는 정통 알앤비(R&B)와 트랜디한 멜로디 라인을 결합한 크로스오버 알앤비 장르다. 도의가 멤버들과 함께 데뷔를 위해 노력했던 스토리를 가사에 담았다. “멤버별로 각각 연습 기간



은 다르지만 3~9년 동안 준비했다”며 “모든 과정은 결국 다 이유가 있고 역경을 견뎌내야 다 이아드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썼다”고 했다.

다른 타이틀곡 ‘캘리포니아 러브(California Love)’는 첫눈에 반한 이성에게 캘리포니아의 강렬한 태양처럼 주저함이 없이 다가가는 MZ 세대의 사랑 이야기다.멜로디컬 랩과 얼반 비트가 어우러졌다. 여기에 어쿠스틱 기타와 트랩 비트 위에 보컬이 특색을 더했다. 제니퍼 로페즈, 아리아나 그란데, 핏불의 프로듀서로 유명한 타이먼 샤프트가 참여했다.

베이비몬스터, 첫 무대 비하인드 공개

그룹 ‘베이비몬스터’가 설렘 가득했던 첫 무대의 비하인드를 공개했다.

28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베이비몬스터가 공식 블로그에 ‘베이비몬스터 - ‘스틱 인 더 미들’ 스페셜 스테이지 비하인드(BABYMONSTER - ‘Stuck In The Middle’ SPECIAL STAGE BEHIND)’를 전달 게재했다.

선공개곡 ‘스틱 인 더 미들(Stuck In The Middle)’ 첫 라이브 무대 촬영을 앞둔 베이비몬스터는 대기실에서부터 목을 풀며 마음을 다잡았다. 세트장에 들어선 이들은 순백의 피아노와 영롱한 상들리에, 꽃들로 꾸며진 웅장한 무대에 감탄을 연발했다.

무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베이비몬스터 맞춤형으로 준비됐다. 멤버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새겨진 오렌지빛 커스텀 마이크, 좋아하는 것들로 꾸며진 인이어를 소개한 뒤 환한 미소로 본격적인 리허설에 나섰다. 무대기 시작되자 멤버들은 천진난만한 모습을 지우고 단박에 감정에 몰입했다. 앞서 베이비몬스터는 오는 4월1일 첫 번째



미니앨범 발매 소식을 전했다. 이 앨범을 기점으로 멤버 아현이 복귀해 7인조 완전체로 활동을 펼친다.